

# Newsletter

October 2012

Vol.18



## 01 Korea Director's Memo

지난 2008년 캐나다 천연자원부 당시 장관인 Gary Lunn 장관의 한국 방문에 이어, 현 캐나다 천연자원부 .....more

## 02 특집기사

### 건축사 4인 4색의 목조주택 이야기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아파트'라는 등식이 성립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more

## 03 국내 목조건축 사례

**자연과 시간 그리고 여유에서 찾는 행복**  
잠실에서 출발한지 한 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양평의 미리내 캠프 뒤흘쪽으로 20여 채의 목조주택들이 완만한 언덕을 .....more

## 04 해외 목조건축 사례

**르메이 자동차 박물관(LeMay Car Museum)**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새로 건축된 르메이 (LeMay) 박물관에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전시장 홀에 줄지어 서있는 .....more

## 05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사항

7월 2일~6일 계명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7월 2일~14일 2012 목조건축 한마당

7월 10일~18일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 미디어 미션 개최

7월 12일 캐나다우드 - 한국목조건축협회 QS 워크샵 개최

7월 13일 우드월 세미나 개최

8월 13일~17일 아주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9월 1일 우드유니버시티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 13기 수료식

9월 3일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특강

9월 10일~16일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9월 13일~16일 2012 부산경향하우징 페어 참가

9월 14일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9월 15일 건축가 4인 4색의 목조주택 이야기 세미나 개최

9월 17일 제4회 대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9월 20일 캐나다 천연자원부 조 올리버 장관 방한

9월 25일~27일 대원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06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10월~12월 활동계획

10월 13일 우드유니버시티 WDO(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실무 과정) - 11기 개강

10월 19일~21일 제23회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2012 참가

10월 24일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10월 25일~26일 목조주택 구조(내진) 설계 워크샵 개최

11월 10일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12월 15일 캐나다우드 - 목재문화포럼 목조건축 설계 세미나 개최

12월 17일~2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전시회 일정]

10.23(화) ~ 10.26(금)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 COEX

10.30(화) ~ 11.2(금)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2012 / COEX

10.25(목) ~ 10.28(일)

제 8회 광주국제건축박람회 / 김대중 컨벤션센터

11.1(목) ~ 11.4(일)

제 7회 KBC 건축박람회 / 김대중 컨벤션센터

12.14(금) ~ 12.16(일)

제 2회 목재산업박람회 / COEX

# Korea Director's Memo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표



지난 2008년 캐나다 천연자원부 당시 장관인 Gary Lunn 장관의 한국 방문에 이어, 현 캐나다 천연자원부 Joe Oliver 장관이 2012년 9월 한국을 방문하여 캐나다와 한국간의 에너지관련 무역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한 숨돌릴 틈 없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국내 목조건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Oliver 장관은 국내 목조건축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한국의 목재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캐나다우드와 국내 목조건축 업계의 목조 건축에 대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시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였다.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측 대표인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이하 목건협) 박찬규 회장은 Oliver 장관에게 5-Star 목조건축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목건협과 캐나다우드와의 한국 내에서의 다양한 협력 활동들을 소개하고 한국목조건축의 규모 및 현안,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등을 브리핑 하였다. 경민산업 이한식 사장, 삼익산업 김형석 상무와 노바건축사사무소 강승희 소장은 우드월 시장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저층 목조공동주택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고, 미추건축사사무소 송재승 소장은 캐나다우드와 함께 개발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의 중요성과 목조건축 Design Tool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남양주 에코빌리지란 이름으로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데모 프로젝트로 선정된 국내 최초의 4층 목조 공동주택을 설계하고 최근 땅콩집(Duplex House)이란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광장건축 이현욱 소장은 데모 프로젝트를 후원한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땅콩집을 주제로 발간한 책자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참석한 캐나다목재 유통회사인 리브라더스 이정복사장과 서중인터내셔널 조용노 이사는 방부목을 포함한 목제품품질인증제도에 관련한 이슈와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캐나다우드를 대표하여 함께 참석한 폴뉴먼 회장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안드레아 클리멘츠 일등서기관은 국내 목조건축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캐나다천연자원부 Oliver 장관



Oliver 장관에게 기념 책자를 전달하는 광장건축 이현욱 소장



단체사진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캐나다우드수출프로그램자금을 통하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및 유럽지역 캐나다우드의 다양한 시장접근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캐나다의 연방정부이다.

# 특집기사

## 건축사 4인 4색의 목조주택 이야기

목조주택으로의 초대

### 목조주택이 환영 받는 이유는?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 = 아파트'라는 등식이 성립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목조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목조주택이 사람들에게 환영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목조주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15일 백스코 제2전시장 121호에서 개최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를 위한 것. 세미나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생, 시민, 건축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사 4인 4색의 목조주택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내에서 목조주택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강승희 건축사(노바 건축), 조남호 건축사(솔토 건축), 이현욱 건축사(광장 건축), 송재승 건축사(미추 건축)가 강연자로 나서 각자의 작업을 토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목조주택에 대한 오해들로 말문을 연 강승희 건축사는 여천재, 여천재 등의 작업을 소개하며 도시형주거로서 목조주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주택은 거주자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하며, 그것을 공간화 하는 것이 바로 건축사의 작업인 만큼 건축사와 함께 짓는 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출간된 '집짓기 바이블(마티, 2012)'의 저자 중 한명인 조남호 건축사는 오래 전부터 현대건축의 보편적 구법과 전통을 수용한 목구조에 집중해왔다. 그는 '보편적 실험'이라는 키워드로 작업한 살구나무집을 비롯해 평창동 주택, ALZNER 사옥 등을 소개하며 현대의 확장된 거주개념을 설명하는 한편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주택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에 땅콩집 열풍을 몰고 온 이현욱 건축사. 그는 '땅콩집'의 탄생배경이 된 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땅콩집은 서민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주택임을 밝혔다. 또한 땅콩발을 통해서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아파트의 맹점을 보완하고, 도심에서 사라져가는 골목길을 부활시키고자 했음을 설명했다.

송재승 건축사는 그린홈(Green Home)디자인으로서의 목조주택을 설명하는 한편, 목조주택 작업시의 주의사항 및 적용 가능한 자재·제품들을 소개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건축주들도 제반사항을 이해한다면 더 건강하고 스마트한 집을 완성할 수 있다며, 목조건축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캐나다우드를 소개하는 정태욱 대표



광장건축 이현욱 건축사



노바건축 강승희 건축사



미추건축 송재승 건축사



솔토건축 조남호 건축사

발췌: 건축사신문 제160호 2012년 9월 20일자 기사

## 국내 목조건축 사례 자연과 시간 그리고 여유에서 찾는 행복

홍성철·이은경씨 부부의 목조주택에서 사는 이야기



잠실에서 출발한지 한 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양평의 미리내 캠프 뒤쪽으로 20여 채의 목조주택들이 완만한 언덕을 따라 조화를 이루며 단지를 이루고 있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풍의 집도 있었고, 새로운 디자인의 세련된 집들도 있었는데 모두 다 나무로 지어졌다는 게 약간은 신기하게 느껴졌다. 숨이 탁 막힐 정도의 폭염이 계속되던 날, 우리를 마중 나온 목조주택 주인인 홍성철, 이은경 부부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들과 함께 네 가족의 목조주택 체험기를 들어봤다.

이들 부부가 이곳으로 온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7년 전부터 전원생활을 꿈꾸며 버리고 버려다 내린 결과였다.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잦아졌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아토피와 아들의 비염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들답게 공부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경험이 더 소중한다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었다. 이곳 저곳 답사도 하고 황토, 목조 등 다양한 소재로 지어진 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결론을 내린 건 바로 목조주택이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의 직장 출퇴근 문제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는 텃밭도 가꾸고, 정원도 꾸미고, 단지 내 이웃들과 교류 하느라 주중에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목조주택에 사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고 한다.

전원생활의 즐거움 덕분에 더욱 행복하고 화목해졌다는 홍성철·이은경씨 가족



단지전경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목조주택 전경



온 가족이 다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라스 전경

**목재가 숨쉬는 집에서 여름엔 시원하여 에어컨이 필요 없어**

집에 들어서니 바깥의 더위와는 전혀 다른 쾌적한 시원함이 느껴졌다. 지난 2월에 입주하여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에어컨 한번 틀지 않으면서도 더운 줄 모르고 지낸다. 이유인즉 목조주택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라. 나무가 알아서 습도를 조절하는 본연의 성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습기를 머금었다 뿜어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단다. 더불어 냉, 난방비의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의 여유가 덤으로 따라온 것 같단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에서의 큰 문제점인 새집증후군이 없다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곳으로 이사 와서 가장 기쁜 점은 큰아이의 아토피가 없어졌고, 작은아이의 비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면 믿지 않겠지만, 6개월 동안 병원 한번 안 갔는걸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캐나다산 SPF를 구조재로 사용**

이 목조주택은 내, 외부 모두 캐나다산 SPF(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를 구조재로 사용했다. 강도가 높아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수종으로 목조주택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와 적합하기 때문이다. 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어 꼭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한다. “작년 여름 그 긴 장마에도 이곳에서 보낸 주말은 녹녹한 걸 전혀 모르고 지냈어요. 그때 목조주택의 장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고는 나무의 매력에 흠뻑 빠져 모든 것들을 나무로 된 것들로만 꾸렸고 거실 소파, 아이들 책상, 침대 등 모든 가구를 나무로 바꿨어요.”

목조주택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은 물론 이거니와 변경, 수정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설계나 건축 단계에서는 물론 이미 완성된 건물에서도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어 매력적이다. 흔히 목조주택이 철골 구조를 갖춘 시멘트 주택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일반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내진 성능도 뛰어나고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도 걱정이 없다. 목재로 지은 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 없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페인트를 새로 칠하듯 목조주택은 5년에 한번 정도 외벽 코팅해주는 정도란다.

**주변 친지들도 목조주택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어..**

처음 이사를 결정했을 때 주변 친지들의 반대도 있었다. 왜 그런 시골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하느냐 등등 우려 섞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사를 한 후에 방문한 손님들의 한결 같은 반응이 ‘나도 이런 곳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적극적인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사실 모든 이들이 마음 속으로는 전원생활을 동경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욕심을 못 버리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도 공부 걱정만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인성을 갖추고 넓게 보는 시야를 갖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듯 흥성철 이은경씨 부부는 목조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그들의 꿈과 아이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지금껏 내린 결정 중 최고의 선택이 바로 지금 이순간이라 생각하고 네 가족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가꿔나가고 있다.



딸아이의 방



프로방스풍으로 연출한 주방



탁 트인 전망을 배경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 해외 목조건축 사례 르메이 자동차 박물관 (LeMay Car Museum)

최재철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이사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명 : 르메이 미국 자동차 박물관 (LeMay - America's Car Museum)  
 위치 : 워싱턴주 타코마 (Tacoma, Washington)  
 완료 : 2012년 6월  
 설계 : Grant Price Architects  
 시공 : JTM Construction  
 구조기술 : Western Wood Structures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새로 건축된 르메이 (LeMay) 박물관에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전시장 홀에 줄지어 서있는 빛나는 클래식 자동차들에 시선이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천장으로도 눈길이 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날아오를 듯이 높이 솟아 있는 곡선형의 글루램 보로 형성된 지붕 시스템은 방대한 공간에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동시에 장엄함 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연면적이 15,329m<sup>2</sup>이며 '미국의 자동차 박물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진 이 박물관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건축됐다. 그 이름에 걸맞게 박물관 안에는 1906년 'Cadillac Model M'에서부터 1965년 'Lotus' 경주용 자동차, 1983년 'DeLorean DMC 12' 까지 개인 및 기업 그리고 Harold LeMay (자동차 수집가)가 수집한 값비싼 350대의 자동차, 트럭 및 모터사이클들이 전시되어 있다.

## 곡선의 미학

박물관의 주 전시장은 마치 창고 같은 긴 공간으로 돼 있어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목구조와 전시 디테일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오히려 미학적으로 공간이 강조되고 있다. 곡선형의 지붕 시스템은 19개의 글루램으로 골조를 이루고 있고, 글루램 사이에 150mm 크기의 글루램 가새가 1.2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글루램 보들은 220mm x 1300mm 크기로 전시장 바닥으로부터 약 30미터 높이에서 호를 그리고 있다. 지붕의 곡선이 양방향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757개 지붕 가새의 절단면, 길이 그리고 가새를 보와 이어주는 행어 (Hanger)의 각도도 각각 다르게 디자인 되어있다.

28mm 두께의 표면 처리된 합판은 지붕덮개로 사용되고 있는데, 곡선형의 지붕구조체 부분에는 힘이 조금 더 자유로운 12.5mm 와 15mm 두께의 얇은 합판을 사용했다. 그리고 방수 처리된 고형단열재와 금속 지붕 마감재로 지붕 구조물을 완성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재 모멘트 골조 중의 하나인 아치 디자인은 1시간 내화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2009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이라고 하는 조례를 기준으로 3-인치 아치 시스템에 요구되는 구조용 글루램 아치 부재 및 연결철물의 내진 규정에 맞게 설계 됐다.



르메이 박물관 지붕의 아치로 된 곡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글루램 보들이 세워져 있다.



주 전시장 내부. 반짝거리는 자동차들이 밝은 조명아래 전시되고 있다.

남측 구조물 단부의 지붕 시스템은 마지막 글루램 아치 위로 캔틸레버 보가 곡선형의 처마단을 고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마 밑으로 비를 차단하는 외부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랜드 프라이스 건축사사무소 (Grand Price Architects)의 앨런 그랜트 (Alan Grant) 이사는 “글루램 보로 구조를 디자인한 이유에 대해서 글루램 보들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히 미학적인 이유에서 만이 아니었습니다. 뽀뽀한 재정 때문에 건축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담도 있었죠”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르메이 박물관의 건축비는 1㎡당 한화로 130만원 정도 소요된 반면 전형적인 박물관의 건축비용은 이보다 4배에서 8배 정도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 자동차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박물관 외부에서 보면 곡선형의 금속 마감재로 덮인 지붕의 효과는 환하게 빛나고 마치 자동차의 공기유학적인 표면 같은 유선형의 간결한 모습이다. 건축가는 박물관과 근접한 타코마 돔 (Tacoma Dome)을 포함한 주변 건물로부터 서있는 타코마 지역의 대규모의 역사적 건축물들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형태와 크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 내부는 외관이 반짝이는 자동차들을 전시하는 이 구조물의 주요 기능이 들어나도록 의식적으로 재료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바닥은 마치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동차의 외관을 디자인 할 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고려하는 도로와 같은 검은 색의 콘크리트로 장식을 하고 있다. 건축가는 또한 조명의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어느 곳을 집중 조명할 지 또는 자동차 전시회 등에서 종종 노출 조명이 사진 상에서 밝은 조명 자국과 빛을 남기는 것도 고려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저렴했다. 조명기구를 매달면서 상부로 40%의 빛을 아래쪽으로 60%의 빛을 흩어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렬하고 밝은 빛이 공간이 새빨갭게 빛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2012년 6월 2일에 문을 연 르메이 박물관은 창업자, 후원자 그리고 건축팀의 10년 정도의 노력에 의해 좋은 결과물로 완성됐다. 이러한 공간은 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감탄할 뿐 아니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목격하고 열정을 나누며 미국의 유산을 보존하는 장소를 제공함에 있어 성공적인 공간을 창출했다는데 의의가 더욱 의의가 있다.



합판으로 덮은 곡선형의 지붕은 자동차의 공기유학적인 표면 같은 유선형의 간결한 모습이다.

## Did you Know

### 캐나다 밴쿠버 첫 6층 경골목구조 공동주택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건축법이 2009년 개정되어 6층 경골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해진 후 밴쿠버 광역시에서 최초로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된 6층 경골목구조 공동주택

(사진 출처 [www.quattroliving.ca](http://www.quattroliving.ca))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사항

## 7월 2일~6일

### 계명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과 캐나다우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골목구조 워크샵이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워크샵에 참여한 40여명의 학생들은 실습교육에 앞서 경골목구조주택에 대한 이론교육을 통해 경골목구조설계 및 시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였다. 실습용 목조 파빌리온은 워크샵에 참여한 4팀의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여 최종 선정된 작품을 워크샵 기간 동안 실물로 제작했다. 특히, 워크샵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는 캐나다 대사관의 안드레아 클리멘츠 일등 서기관이 특강과 수료식을 위해 참석하였다. 완성된 목조 파빌리온은 공학관 앞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닥구조체를 만드는 학생들



구조체를 조립하는 학생들

## 7월 2일~14일

### 2012 목조건축 한마당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충남대학교가 주최한 '2012 목조건축 한마당'이 2주間に 걸쳐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목조건축 한마당은 목조건축의 보급 확대와 시공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생과 일반인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주간 실습과 야간 이론 교육을 통해 직접 60평 2층 목조 주택을 지었으며 완공된 건물은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함에 기증되었다.



목조건축 한마당 참가자들의 목구조 시공모습



수료식 후 교수진과 참가자들의 단체 기념사진

## 7월 10일~18일

###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 미디어 미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국내 언론 및 디벨로퍼, 건설사, 국내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25명과 함께 7일간 캐나다를 방문하는 미션을 개최하였다. 시찰단은 알버타 주의 에드먼튼, 밴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휘슬러를 방문하여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제품의 생산, 그리고 목조건축의 시장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다양한 목조건축 및 복합건물과 목조 단독 및 저층 공동주택 등을 견학하였으며, 미션 참가를 계기로 국내에서 활발한 목조건축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층 목조공동주택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밴두센 가든 방문자센터 견학 후 참가자 단체 사진

## 7월 12일

### 캐나다우드 - 한국목조건축협회 QS 워크샵 개최

목조건축물의 시공 품질의 향상을 위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3번째 QS 워크샵이 주택문화센터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40여명의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사 실무진들이 참석한 이번 QS 워크샵은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캐리 학비스트씨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골조 시공 디테일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샘플 모형을 놓고 설명하는 캐리 학비스트

## 7월 13일

### 우드월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근무자,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경골목구조 우드월 세미나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광장건축의 이현욱 소장이 계획 중인 안성 4층 땅콩아파트의 우드월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캐리 학비스트씨가 중국에서 진행된 우드월 적용 사례를 통한 기술적인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8월 13일 ~ 17일

아주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2010년부터 진행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와의 경골목구조 워크샵이 올해에도 아주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24명의 참가학생들은 워크샵 진행 몇 주전부터 디자인작업에 참여해 목조 파빌리온의 완성도를 높였다. 디자인작업을 하기전에 학생들은 경골목구조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교육을 받았으며, 완성된 목조 파빌리온은 공공기관에 기부되어 목재 표면에 적절한 처리를 한 후 휴게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목조 파빌리온을 제작중인 학생들



완성된 목조 파빌리온

9월 1일

우드유니버시티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13기 수료식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후원하는 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공동주택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3기가 9월 1일 종강과 함께 수료식을 하였다.

2012년 4월 14일부터 5개월간 진행된 목조 건축 전문가과정을 수료한 22명의 교육생들은 캐나다우드가 인정한 수료증을 교부 받았으며, 차기 WBI-14기의 교육은 2013년 4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WBI-13기 수료생

9월 3일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특강

캐나다우드 최재철 이사는 대학연계교육의 일환으로 대전대학교 건축학부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동구캠퍼스에서 특강을 하였다. 최재철 이사는 '경골목구조 개요 및 특징'이라는 주제로 경골목구조 주택의 시공 및 설계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전대학교, 배제대학교 건축과와 2012년 10월에 경골목구조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경골목구조 워크샵 기간 동안 캐나다산 규격재와 목질판재를 사용해 '201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주제관 내 전시장을 꾸미게 될 예정이다.



목조건축 개요에 대한 특강



특강 후 질문과 대답

9월 10일 ~ 16일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건축과와 캐나다우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골목구조 워크숍이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부산 BEXCO 제2전시장 옥외전시장에서 '2012 부산경향하우징페어'기간에 맞춰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다. 워크샵 10일, 11일은 경골목구조주택에 대한 이론교육 및 플레이하우스 모형제작 교육이 있었으며, 12일부터 플레이하우스를 실물 제작하는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번 실습교육에는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케리 학비스트씨가 참가하여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실습교육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실습교육 기간 동안 BEXCO에서 제작된 소형 목조 플레이하우스(Play house)는 완성 후 지역사회 어린이시설에 기부되었다.



지붕골조 작업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벽 마감 중인 학생들

9월 13일 ~ 16일

2012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2012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캐나다산 목재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페어 기간 중에 BEXCO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9월 15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주최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를 개최

했으며, 세미나 후 부산건축가회 임원 및 부산 지역 건축사를 초청하여 부산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캐나다우드의 활동 안내와 우드월 국내 및 중국 시공사례를 소개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부산 건축사 초청 우드월 간담회

9월 14일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건축사회, 부산건축가회와 공동으로 캐나다우드에서 2년간 개발해온 '목조건축 표준 상세-경골 목구조편' 책자를 소개하는 워크샵을 부산 및 경상지역 건축사와 목조건축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벵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워크샵에 참여한 부산건축사회, 부산 건축가회 회원인 건축사들과 경상지역 목조 건축 관련 종사자들은 목조건축 표준 상세 책자 및 캐나다우드 기술 책자, 캐나다 목조 공동주택 도면 CD-2등을 무료로 전달받았 으며 목조건축 설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9월 15일

'건축가 4인 4색의 목조주택 이야기'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사)한국목조건축 협회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2012 부산 경향하우징페어 기간 중 벵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건축가 '4인 4색의 목조주택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국내

목조건축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건축가 4명 (노바건축 강승희소장, 미추건축 송재승소장, 광장건축 이현욱소장, 솔토건축 조남호소장)이 목조주택 설계에 대한 그들만의 진솔한 목조 주택 설계 이야기를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발표하였고, 150여명의 참석 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9월 17일

제4회 대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대구대학교는 제4회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에서 1주일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대구대학교 목조건축 실습과목의 일부로 진행되는 워크샵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골 목구조 이론교육과 소규모 목조건축물 제작 실습을 통해 건축자재로서의 목재와 목조 건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공기술을 습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벽체 제작 중인 대구대 학생들



지붕골조 작업 모습

9월 20일

캐나다 천연자원부 조 올리버 장관 방한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조 올리버 장관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 인사들과 만나 양 국가의 무역

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 했다. 방한 기간 중 20일 주한 캐나다 대사 관에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목조 건축 관련 산업계 인사와 건축사들을 초청 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장관의 각 국 행보에 캐나다 임산물협회를 대표하여 캐나다우드 폴 뉴먼 회장이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날 만남의 자리에 캐나다우드 한국 사무소 정태욱 대표와 함께 참석하였다.



9월 25일 ~ 27일

대원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대원대학교 건축, 인테리어학과와 캐나다 우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골목구조 워크 샵이 대원대학교 제천캠퍼스에서 9월 25일 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됐다. 워크샵 참가 학생들은 실습교육 전 목조주택에 대한 이론 및 플레이하우스 모형제작 교육을 받았다. 실습교육 기간 동안 제작된 소형목 조주택(Playhouse)은 완성 후 제천 지역의 도서관에 기부되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플레이하우스 지붕골조 및 마감작업



플레이하우스 완성 후 단체사진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10월~12월 활동계획

## 10월 13일

### 우드유니버시티 WDO(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실무 과정)-11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에서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11기'가 10월 13일 양재동 교육장에서 개강을 한다. 우드유니버시티의 WDO 과정은 구조설계 전문과정이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목조건축 구조계산 Software인 'WoodWorks Design Office 교육용 버전'을 무료로 제공받아 Software 사용법과 실습을 통해 목조건축 구조설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 10월 19일~21일

### 제23회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2012 참가

한국건축가협회(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대전건축가회와 캐나다우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골목구조 워크샵이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대전지역 4개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은 10월 19일부터 개최되는 2012대한민국건축문화제 주제관 내부에 목조 파빌리온을 캐나다산 구조재를 이용해 제작하는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실습교육 기간 동안 제작된 목조 파빌리온은 건축문화제 기간동안 방문객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 10월 24일

###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코엑스 세미나실에서 건축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 참가자에게는 '목조건축 표준 상세-경골목구조편' 책자와 캐나다 4층 목조공동

주택 설계도면 CD-2, 목조건축 접합부에 사용하는 철물 CAD파일이 들어있는 CD 및 카다로그 등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10월 25일~26일

### 목조주택 구조(내진)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충남대학교 목구조연구실과 공동으로 목조주택 구조(내진)설계 워크샵을 10월 25일~26일까지 2일간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샵은 목조주택의 내진설계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목조주택 내진설계를 위한 KBC-2009의 적용 내용 소개와 목조주택 내진설계용 엑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 11월 10일

###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조건축 세미나를 제주시 다음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제주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금번 세미나는 제주 지역의 일반인과 예비 건축주를 위해 목조건축의 장점과 5-Star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며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캐나다우드 발행 기술 책자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 12월 15일

### 캐나다우드-목재문화포럼 목조건축 설계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목재문화포럼은 공동으로 '2012 목재산업박람회' 기간 중 목조건축 설계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201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시상식과 더불어 계획부문과 준공부문 수상자의 작품 소개 및 2003년부터 진행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지난 수상작

소개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2년간 개발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경골목구조편' 책자를 소개하고 200여명의 세미나 참가자에게 '목조건축 표준 상세'와 목조건축 관련 기술자료 등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 12월 17일~21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에서는 캐나다우드와 공동으로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진주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워크샵을 통해 경골목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실습 및 이론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워크샵 기간 동안 캐나다임산물연구소(Forintek)의 지영 왕 박사가 방문하여 목재의 이용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소형 목조 플레이하우스(Playhouse)를 제작하는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 [전시회 일정]

10.23(화)~10.26(금)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 COEX

10.30(화)~11.2(금)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2012 / COEX

10.25(목)~10.28(일)

제 8회 광주국제건축박람회 / 김대중 컨벤션센터

11.1(목)~11.4(일)

제 7회 KBC 건축박람회 / 김대중 컨벤션센터

12.14(금)~12.16(일)

제 2회 목재산업박람회 / COEX



**Canada Wood**  
캐나다우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번지 203빌딩 3층  
TEL : 02-3445-3834~5 FAX : 02-3445-3832  
[www.canadawood.or.kr](http://www.canadawood.or.kr)